

“진안군 성공시대 열겠습니다”

전춘성 진안군수 취임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나가는 미래 진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안군 전춘성 군수는 지난 1일 진안체육회관에서 각계각층의 인사와 진안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1대 진안군수 취임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전 군수는 취임식에 앞서 마이산 남부 독립유공자 추모탑과 충혼탑을 찾아 헌화·분향했으며 농업기술센터 광장에서 기념식수를 삼고 브리핑실



을 찾아 군정 비전을 발표했다. 이어 취임식이 열리는 진안문화체육회관으로 이동했다. 취임식은 식전 난타 공연과 진안군민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 시청, 취임선서, 취임사, 축하메시지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전 군수는 이날 취임사에서 군정비전과 함께 △새롭게 변화하는 계획도시 △골고루 잘사는 경제육성 △누구나 누리는 복지생애 △꿈을 실현하는 인재육성 △가고싶고 찾고싶은 휴양관광 △군민에게 신뢰받는 소통행정 등 진안군이 앞으로 나아갈 군정 방향을 제시했다.

전춘성 군수는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진안군 성공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전 군민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보다 더 깊이 있는 소통과 과감한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의회가 지난 1일 제292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의장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9대 무주군의회 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의장 이해양·부의장 오광석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최운선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송재기 의원

무주군의회가 지난 1일 제292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의장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선출된 전반기 의장에는 이해양 의원(57, 가선거구), 부의장에는 오광석 의원(44, 나선거구)이 선출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장은 최운선 의원(46, 가선거구), 산업건설위원장은 송재기 의원(51, 가선거구)이 각각 선출되었다. 신임 이해양 의장은 3선의 원으로, 제9대 무주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오광석 부의장과 최운선 행정복지위원장, 송재기 산업건설위원장은 초선의원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민이 주인인 군민정치시대 열겠다”

황인홍 무주군수 취임

민선 8기 무주군수 취임식이 지난 1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전·현직 도의원과 군 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등 내빈을 비롯해 군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개식 선언부터 취임선서, 취임사, 무주군민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46대 무주군수로 단상에 오른 황인홍 군수는 선서를 통해 범민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사회 구현을 위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으며 취임사에서 “민선 8기에는 안전한 무주를 만들고 군민이 주인인 군민정치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주인의 역사와 문화, 반딧불이와 태권도 산골이라고 하는 차별화된 가치를 활용해 무주다움을 완성하고, 무주다움을 기반으로 무주를 희망



가득한 삶터이자 일터, 쉼터로 가꿔 군민행복을 채우겠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할 군정지표로 △풍요로운 문화관광과 △활력있는 지역경제, △함께하는 주민복지, △지역맞춤 특색개발 △신뢰받는 섬김행정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황 군수는 “오로지 무주만 생각하고 군민만 바라보겠다는 초심 깨끗한 군수, 정직하고 부지런한 군수, 군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군수가 되어 여러분께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기며 또 다시 될 것이라며 “군민이

주인인 무주,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무주, 군민이 살 맛 나는 무주, 그래서 자랑스러운 무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인홍 무주군수는 취임식 전 충혼탑을 참배하며 순국선열 앞에 헌화와 분향을 했으며 행사 후에는 군청 앞 화단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무주종합복지관 배식 봉사에도 동참했다.

무주군민들은 “아무래도 4년간 무주를 이끌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추진력 있게 잘했던 걸까”라 다시 맡겨도 믿음이 간다”라며 “그동안 시작했거나 진행 중이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가 돼서 군민들 먹고 사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선 7기 군수를 지낸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58.6%의 지지를 얻고 재선에 성공했으며 전 국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부회장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공동 회장을 맡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 건설”

최훈식 장수군수 취임

민선8기 최훈식 장수군수가 지난 1일 한누리전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장수군 도약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안호영 국회의원, 장정복 장수군의회장 및 군의원, 각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훈식 신임군수의 취임선서, 취임사, 각계각층의 군민들의 열원이 담긴 축하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취임사를 마치고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연 최 군수는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를 핵심과제로 내걸고 5대 군



정 방침을 마련해 역점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최 군수는 “철책과 위기를 딛고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를 만들어야 하는 중추적인 시기에 장수군수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두 어깨가 무겁다”며 “농업을 발전시키고 군민 삶의 질

도 더 향상시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 미래로 나아가는 장수군을 건설하기 위해 끼나를 잊고 노력하는 발본만사(發本萬事)의 자세로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최 군수는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 건설을 위한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군민, 공직자와 함께 힘을 합쳐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9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의장 장정복·부의장 이종섭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에 최한주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김광훈 의원

장수군의회는 지난 1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9대 전반기 장수군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에 장정복, 부의장에는 이종섭, 행정복지위원장에 최한주, 산업건설위원장에 김광훈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이날 선거에는 재직의원 일곱명이 모두 참석하여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를 결정했다.

장정복 의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의장 임기 동안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

는 상생 회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원납품과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의 뜻이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복 의장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으로 제9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과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이어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최한주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김광훈 의원을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거에서 당선된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간인 2024년 6월 30일까지이다.

의장단 구성을 마친 장수군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제9대 장수군의회 개원식’을 갖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청년협의체, 청년물 활성화 위한 밥수다 진행

진안군은 진안고원 시장 청년물에서 ‘청년물 및 청년산인 활성화’를 주제로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밥수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밥수다 프로그램은 읍, 면 지역의 식당 및 거점시설을 순회하며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와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진안청년협의체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진안군 청년협의체(회장 육성룡)가 신바람을 일으킬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이다. 이번 밥수다 행사는 청년물 입점 상가 활성화를 위해 식사, 음료, 디저트 등 다양한 메뉴를 리타공방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 청년들이 편하게 어울릴 수 있게 아이돌방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관광리더 양성 추진

진안군은 지난 1일 마이산 북부 상인회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진안관광리더 양성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진안관광리더 양성 사업은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마이산 북부 상인회 회원 20여명은 2차 3일 일정으로 서울시 일원을 방문해 선진 사례를 탐방했다. 프로그램은 선진지 탐방, 마케팅 강의, 조별 활동 등 상권 역량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롯데타워를 비롯해 삼정동 일대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와 인근 음식점 등을 방문해 방문지의 특이점과 색다른 노하우를 몸소 체험했다. 체험 후에는 참가자들이 모여 관내 관광객에 접촉할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등 상호 간 화합과 협력을 다지는 조별 활동도 함께 실시해 개인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시간도 마련됐다.

마지막 관광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석자들의 장기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마이산 상권의 인지도가 향상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제9대 진안군의회 의원들의 다짐

“군민 목소리 귀 기울이는 의회 구현”

지난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진안군민의 민의를 대표할 7명의 의원들의 다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까지 제9대 진안군의회 의원들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7명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제9대 진안군의회 의원 당선인 중 유일하게 재선의 고지를 밟았다. 김 의원은 “군민 공감형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적절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김 의원은 “지난 선거기간 동안 군민들과 소통하며 우리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 볼 수 있었다”며 “농촌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 일자리 확충과 현실적인 귀농·귀촌 정책 개발과 제언에 특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들과 청소년이 즐거운 진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공간 및 교

육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동규 의원(가 선거구, 무소속)은 진안군 이장협의회장 출신의 의원이다. 그만큼 주민들과 함께 오랜 시간 지내왔으며 그 누구보다도 진안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원이 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많고 노약자가 대부분인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주문하며 “진안군 관내버스요금 1,000원 단일화와 진안-전주간 시외버스요금의 합리적인 인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층 독거



김민규 의원, 손동규 의원, 이우라 의원, 김명갑 의원, 동창욱 의원, 이명진 의원, 이미옥 의원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독거노인 안부전화 제도 추진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군민참여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우라 의원(가 선거구, 무소속)은 올해 200세로 진안군의회 최연소의 위 타이틀을 갖게 됐다. “진안의 새로운 변화를 꿈꾸면서 그 변화의 꿈을 군민과 함께 이루고 싶다”는 이 의원은 지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강화와 이동전화 보육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과 진안형 귀촌귀향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최연소 군의원이라는 타

이들이 기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군민의 곁에서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낮은 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명갑 의원(나 선거구, 무소속)은 “다양한 농업관련 단체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인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농기계 수송서비스와 농기계사용 유통망 보급부터 생산비 절감을 위한 맞춤형 비닐보류 지원 등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김 의원은 생산부터 ‘수확-선별-포장-물류’로 이어지는 농특산물 가공유통 상품화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동창욱 의원(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군민의 곁에서 항상 소통하는 군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군의원이 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농업전문가답게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읍·면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수출농업 등 명품농업육성 방안 추진과 같은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안군민의 미래먹거리 마련이 필요하며 “우리 진안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진 의원(나 선거구, 무소속)은 “군과 의회는 진안군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며 진안을 위

한 앞이던 비를 앞세는 당군을 버리지 못한 앞에는 재직을 사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 많지만 단 하나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이며 군민을 섬기겠다고 밝힌 이 의원은 “주민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기에 오로지 ‘주민을 위한 헌신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미옥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995년 여성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이후 여성농업인으로 때로는 여성단체장을 역임하면서 농업인의 삶과 애환을 함께해왔기에 그 누구보다도 군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의원이 되겠습니다”고 소감을 밝힌 자가 공인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농업인이다. “젊은 시절부터 고된 농사일에 종사한 어르신들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으며, 나날이 늙어가는 어르신들의 정서를 돌볼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 의원은 “여성과 아동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진안,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진안을 만들어가는데 일조하는 게 목표”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